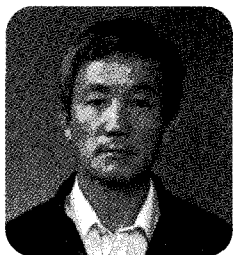


# 구제역이 준 교훈



이 종 영 본회 감사 · 충남도지회장



앞으로 정책당국에서는 1종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축산농가에 보상대책을 축종별로 세분화해서 누가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총체적 방역을 위해서 일선에 수의직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며 공수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축질병의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질병발생 신고를 하며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구제역과 같은 1종 전염병을 퇴치해야 할 것이다.



**새** 천년이 시작되었다고 전세계의 지구촌이 온통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한해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 현장에서는 그렇게 예사로운 한해인 것만 같지는 않다. “농축협 통합철폐 요구”는 축산업 포기 “정부 강력규탄” 대회로 이어졌고 곧 이어서 농림부 장관의 수입쇠고기 이용 권장 문서가 공개되면서 파란의 예고가 시작되더니 드디어 3월 26일에는 가축의 1급 전염병 중 첫째로 꼽히는 악성전염병인 구제역이 수포성 질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축산업 현장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파주, 화성, 홍성, 보령, 용인, 충주 지역에서 주로 젓소와 한우에서 발병되면서 우리 모두를 떨게했고 계속 발표되는 확산 조짐과 피해 상황 및 예방 요령이 전달되었고, 임상 증상과 소독약품이 소개되었다.

'97년 대만에 구제역 피해액수가 42조원이나 된다는 축산업 관련 업계도 함께 떨고 있었고 방역과 소독만이 최상의 대책이었다. 농장 출입구는 생석회를 뿌리고, 아침·저녁으로 축사에 소독약을 살포하며 외부출입을 차단하고 마을 안길 주도로에는 각 단체에서 000급 방역단이라는 명칭 아래 소독약을 뿌리며 구제역 확산 차단에 신속히 대처했고, 그로 인해서 일부지역 외에는 구제역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지만 범 정부 구제역 비상대책본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었다.

좋은 것은 내 지역에 유치하고 나쁜 것은 절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우리 축산인을 애타게 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소독약이 제때에 공급이 안되어 아우성이었다. 그 과정에 언론은 연일 계속해서 머리기사로 구제역에 관한 보도 뿐이었다.

구제역은 1종 전염병이라며 일간신문에도 “한 마을이 초도화가 됐다”,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등이며 TV에서는 대만의 돼지 매몰장면과 우리나라의 젓소, 한우 매몰장면이며 구제역에 걸린 환축과 환부를 매시간 뉴스마다 TV화면을 꼭 채우니 축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연히 우리 축산물을 외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언론처럼 국익차원에서 해가 된다면 조용히 기사화할 수도 있었건만...

앞으로 정책당국에서는 1종 전

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축산농가에 보상대책을 축종별로 세분화해서 누가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총체적 방역을 위해서 일선에 수의직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며 공수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축질병의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질병 발생 신고를 하며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구제역과 같은 1종 전염병을 퇴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구제역 발생지역 10km이내 지역(보호지역)의 예방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돈육수출 재개를 위해서 조기 청정화를 주장하는 일부의 여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구제역 청정화는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

젓소와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도 양돈농가에서 돈콜레라 근절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하듯이 목장의 출입구, 축사주변, 축사내부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소독약을 살포해서 구제역과 같은 1종 전염병이 퇴치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도 머지않아서 구제역 발생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구제역 청정국가로 선포되리라고 믿는다.

예상치 않았던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대해서 전국의 축산인들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하루 속히 해당 농가에서도 재기해서 우리와 함께 축산업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그동안 구제역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각 초소에서 고생해 주고 수고해 주신 군, 정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관계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신속정확하게 발생현황과 대책 및 추진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속보와 공문을 통해 전국의 낙우회 및 낙농가들에게 신속히 연락해 주신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직원에게도 노고를 치하하며 그동안 구제역 파동으로 많은 마음고생을 하신 전국의 축산농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며 철저한 방역과 소독으로 축산농가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란다. ☉

〈필자연락처 : 0451-641-9330〉